

# 주간 변화와 소통

제11-4호

2013년 2월 22일(금)

홈페이지: [kttu.or.kr](http://kttu.or.kr)

트위터: [twitter.com/kttu\\_kr](https://twitter.com/kttu_kr)

## 왜 국민연금 폐지운동인가!

**국민연금 고갈 막으려면 현 9% → 13%로 인상해야 한다?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없애고 기초연금만 유지하면 3%로 낮춰도 충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7월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4~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이에 대한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이 제기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뜨거워 감자로 떠올랐다. 결국 2월 22일,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이 둘을 ‘국민행복연금’으로 묶어 운용하겠다고 덧붙여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정부는 1988년 국민연금을 도입하며 소득대체율을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70%로 설계, 노후보장의 안전장치로 대대적 홍보했으나 고갈을 이유로 현재 소득대체율을 50%선까지 떨어뜨렸다. 더욱이 국민연금으로 해외투자를 늘리고, 국내증시에까지 개입했다는 정황이 터져나오면서 기금운용에 대한 불신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납부율을 9%에서 3%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2월 6일부터 국민연금폐지운동을 시작, 21일 기준 서명자가 7만명에 육박했다. 납세자연맹은 “어려운 노인은 기초연금으로 돕고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은 이자를 쳐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기초연금 재원은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의 3분의 1만 납부해도 충분할 것”이라 강조했다.

근로자계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민연금은 월급여의 9%로, 이중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 지금까지 납부한 돈과 향후 수령 가능한 연금을 보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확인 가능하다.

한 이슈로 떠오른 국민연금 폐지 논란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년 뒤 일하는 젊은이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우리나라 실정상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최근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대다수 납세자들이 빚을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가난한 흑인남성 3분의 1은 연금수령 나이가 되기 전 사망한다는 통계를 예로 들며 “국민연금으로는 가난한 사람도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납세자연맹,

**“기초연금 현 국민연금 9→3%로 충분”  
“이상적인 것은 아예 폐지해 이자쳐 환급”**

한국납세자연맹이 국민연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납세자연맹은 2월 6일 “기초연금만 남겨두고 현 국민연금 부담률인 월급여의 9%에서 3%로 줄여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월 14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처음 가입한 사람에게만 고수익을 보장하고 가입자가 줄어들면 파산하는 ‘다단계 피라미드’와 원리가 비슷하다”며 국민연금 폐지

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구고령화로 건강보험료, 세금부담도 계속 느는데 출산율저하,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 증가 등으로 연금내야 할 계층은 줄어들고 있다”며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기초연금만 남겨둘 것을 촉구했다.

**노후 용돈수준 국민연금,**

**5천만원 벌어도 1억 이상 벌어도 똑같아**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8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389만원, 기준 소득월액 하한은 24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예상 연금 월액표

평균소득월액(A) : 1,891,771		(단위 : 원/월)								
순번	가입기간별(연도) 소득월액(평균액)	연금보통률 (%)	가입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1	240,000	21,600	121,910	177,860	231,23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2	250,000	22,500	122,480	178,700	232,38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36	2,540,000	228,600	253,440	369,770	480,840	591,640	702,430	813,220	924,020	
37	2,670,000	240,300	260,870	380,620	494,950	608,990	723,040	837,080	951,120	
45	3,750,000	337,500	322,630	470,730	612,130	753,170	894,220	1,035,260	1,176,300	
46	3,890,000	350,100	330,240	482,020	626,940	771,490	916,040	1,060,580	1,250,130	

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즉,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나 1억이 넘는 고액 연봉자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같은 것이다.

정부는 1995년 상한액을 360만원으로 올린 뒤 2010년까지 15년간이나 묶어 놓았다. 현재 소득 상한액은 월 389만원이지만, 상한액에 걸린 사람은 13.5%나 된다.

따라서 월 소득이 1억원인 사람도 389만원(월 보험료 35만원)을 적용받아 20년 가입 시, 월 평균 62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하한은 24만원으로 2012년도 최저생계비 55만3,000원의 절반도 안되는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

국민연금제도는 수령액수가 너무 적어 노후보장에 직접 도움이 못 되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200만원 가까이 연금을 수령하려면 소득 상한액을 현재 가입자 평균소득인 189만원에서 4배로 올리자고 주장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소득상한액은 현재 747만원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소득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풍토도 걸림돌이다. 근로자들만 봉인 셈이다.

**공무원연금은 적자에도 소득대체율 70% 유지,**

**국민연금은 2028년 40%로 뚝 떨어져**

1988년 최초로 국민연금이 시행될 당시에는 소득대체율이 70%로 설계됐다. 그러나 재정고갈 우려로 1999년에는 60%로, 2008년에는 다시 50%로 떨어졌다. 그리고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소득대체율은 2009년부터 0.5%p씩 단계적으로 떨어져 2028년에는 40%가 될 전망이다. 2007년 전후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30대는 30년 넘게 부어도 100만원도 못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알아서 채워야 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참고로 공무원연금의 경우 적자가 계속되고 있으나, 70%에 달하는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기금자산규모 전 세계 4위' 진화 나서**

국민연금 폐지 논란이 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2월 18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기금자산이 2011년보다 43조 1000억원 늘어난 391조967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민연금의 자산규모는 '전 세계 4위'라고 강조했다.

또 작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은 24조 9,91

6억원, 수익률은 2011년(2.31%)보다 늘어난 6.99%로 국민연금의 최근 5개년간 누적 운용수익률 연평균은 6.03%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이날 보고된 결산안을 기초로 내·외부 평가기관의 기금운용 성과평가와 분석을 거쳐 6월경 수익률 등 지표의 최종 집계치를 확정 발표한다고 밝혔다.

### 마음대로 탈퇴할 수도 없어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수령이 가능한 국민연금의 탈퇴조건은 무척이나 까다롭다. 즉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가 해당된다. 반면 주부나 학생, 60세 이상 노인 등의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하다.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자는 보험료 납부가 유예될 뿐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실질금리하락과 평균수명 연장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2040년에서 60년 사이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소는 수급액을 그대로 둔 채 2080년 기준으로 고갈되지 않게 하려면 약 44%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보험료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2033년까지 5년마다 서서히 올린다고 할 때, 현재 9%에서 13%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납세자연맹이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결국, 국민연금 인상을 사전에 막으려는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새 정부의 입장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국민연금 폐지논란은 장기전이 될 공산이 크다.

### 납세자연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 10가지'

1. 국민 다수는 빚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
2. 연금의 기회비용은 저소득자들이 더 크고, 연금은 서민들이 부자 되는 것을 막는다.
3. 가난한 사람 상당수는 연금을 받기 전에 죽고, 그 연금은 부자들이 받는다.
4. 미래의 돈보다 현재 돈의 가치가 훨씬 크다.
5. 역진적으로 보험료를 걷고 쌓아둔 기금의 혜택은 주로 부자들이 본다.
6. 국민연금의 본질은 다단계피라미드이다. 고령화 시대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7. 연금을 내는 사람은 경제활동 인구 중 절반이고 근로자 계층이 집중 부담한다.
8. 국민연금은 보험인데 저축으로 속여 팔았다.
9. 과다한 기금은 경제를 망쳐 오히려 국민노후를 불안하게 한다.
10. 전세계 공적 연금은 모두 다르다. 기초연금은 두고 국민연금 폐지가 답이다.

